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한덕운 토마스

(1752~1802)



충청도 홍주 출신의 한덕운 토마스는 1790년 윤지충 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이듬해 스승이 신해박해로 순교했음에도 그는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00년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기도 광주 의일리(현 의왕시)로 이주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교회와 교우들의 소식을 알고자 웅기장수로 변장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청파동에 이르렀을 때 거적으로 덮인 홍낙민 루카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비통하게 애도했다.

또한 서소문 밖에서는 최필제 베드로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이는 박해 상황에서 자신이 신자임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포졸들에게 체포된 그는 혹독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밀고하지도 않았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남한산성으로 옮겨져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50세의 나이에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그는 사형 선고 전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로 굳은 신앙을 증거했다.

“저는 천주교의 교리를 깊이 믿으며 가장 올바른 도리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비록 사형을 받게 되었으나 어찌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빨리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12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8(27), 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예레 20, 10-13

화답송

시편 69(68), 8-10, 14와 17, 33-35 (◎ 14c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 5, 12-15

복음 환호송

요한 15, 26, 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복음

마태 10, 26-33

영성체송

시편 145(144), 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사랑하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래전에는 이 대화를 보면서,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쉬워 보였고 양들을 돌보라는 것은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양들을 돌보라고 일을 시키시는(!) 것은 좀 무리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라고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보니,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종종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식사 시간인지 취침 시간인지도 헷갈리시는 95세 수녀님이 계십니다. 돈을 가위로 잘라 놓기도 하고, 미사 시간에 성무일도를 펼쳐 놓고는 영성체하시라고 해도 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모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 수녀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녀님들을 사랑해요. 내가 자꾸 잘못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도 못하지만, 내가 수녀님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까”(요한 21,16)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요한 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사제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21장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도, 예수님은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생각하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라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보다 베드로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 양들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복음이 끝나지만, 요한 복음에서 한 구절은 다시 인용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



교회 교계와 수도자 신분

「교회헌장」 제45 항

「교회헌장」 제45항은 수도자들에 대한 교회 교계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양 때를 양 우리에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양식을 얻게 하고 도둑으로부터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이듯이, 교계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여 그들이 영적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임무를 갖습니다. 이처럼 교계는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복돋아 주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통해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교계는 성령의 인도로 훌륭한 남녀 수도자들이 제시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더해 보완된 규칙을 교회의 권위로 승인합니다. 또한 교계는 이미 설립된 수도 공동체들이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성장하여 결실을 얻도록 그 권위로 감독하고 보호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이러한 교회법적 행위만이 아니라 수도 성소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소를 식별하며, 수도자들이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동행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필요와 교황의 수위권에 근거한 수도회의 ‘면속(免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법 제591조는 수도회들의 선익과 사도직의 필요성을 위하여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수위권에 의하여 공동 유익의 관점에서 축성 생활회들을 교구 직권자들의 통치에서 면속시켜 자기에게만 또는 다른 교회 권위에게 종속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중세 이후의 교회사에서 교구 성직자 신분과 면속 수도회 신분이 교회에 미쳤던 명암과 관련된 제도

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비오 12세 교황은 교구 성직자의 양성과 교계 설립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에 공의회는 면속 수도회더라도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교구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교는 개별 교회에 권위를 갖고 있고, 교구 안에서 사도직 활동의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수도자들이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수도자들의 서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교회법적 신분의 품위로 세웁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 직무의 인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례 행위를 통하여 수도자 신분이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임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수도자들을 하느님께 봉헌된 신분으로 드러낸다.
_ 수도자들과 만나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복음적 권고에 대한 서원을 받아들이고, 공적 기도를 통해서 서원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과 은총을 얻어 줍니다. 또한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께 맡기고 영적인 복을 빌어주며, 그들의 봉헌을 “성찬례의 희생 제사와 결합”해 줍니다. ☪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2021년 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황 담화의 제목은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TOWARDS AN EVER WIDER WE)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담화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더욱더 너른 품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았음을 되새기며, 문을 닫아걸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더 넓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교황의 표현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과 이웃들과 함께 머무는 ‘공간’, ‘자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공간과 자리는 물리적인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나, 나와 너, 우리와 너희의 관계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공간입니다.

‘마음이 넓다’, ‘속이 좁다’라는 일상의 표현들은 물리적인 의미입니까? 관계적인 의미, 질적인 의미입니까? ‘속이 좁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머무를 공간이 좁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주장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은 다른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 환대와 혐오, 전쟁과 평화, 일치와 분열 등의 모습도 마음의 넓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환대, 평화와 일치는 다른 사람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머물 수 있게 하는 넓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머물 수 없다면 그것은 미움과 혐오, 전쟁과 분열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와 종교가 달라도,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그 ‘다름’을 품어안는 넓은 사회는 분명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요한 14,2).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무한히 넓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머물 수 있으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롭습니다. 죄 많고 부족한 ‘나’도 머물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루카 복음 14장의 혼인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서 고을의 한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루카 14,21-23).

혼인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저는 이들이 잔치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는 넓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 이주민과 난민들이 평화롭게 머물고 생활하기에는 그 자리가 그리 넓지 않습니다. 이주민과 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지만,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주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마다 받은 다양한 선물들로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염원한다면 우리는 경계들을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자리, 곧 더욱더 넓은 우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경계가 만남의 자리가 되는 그 아름다운 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길 청합니다. ☺



교구 소식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6/26(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경숙 마리아, 이상훈, 조소정 세실리아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전시] 은총 展 - 이민혜 미카엘라 회화 개인전

일시 6/27(토)~7/10(금) 10:30~17: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공휴일, 월요일 휴무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7/3(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성당

※ 8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없음

한마음 사계 피정 - 7월, 8월(대침묵 피정) /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7월	8월
일시	7/3(금)~5(주일)	8/21(금)~23(주일)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이승엽 미카엘 신부
주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루카 11,2)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의정부 경제인 회원 모집

신앙 안에서 교류하며 나눔과 봉사를 함께할 경제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의정부교구 경제인

활동 신앙나눔, 봉사, 친교

문의 010-4357-1386 사무총장 조태형

2026년 신앙교육원 여름 계절학기

일시 7/22~8/12, 매주(수) 19:30~21:40 [4주간]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 본원

주제 회복과 전환을 위한 프란치스코 영성

대상 접수순 100명(누구나)

회비 12만원(재학생·졸업생 50%할인)

강사 김일득 신부(작은형제회 제8대 관구장)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제14기 순례단 모집

일정 9/12~11/7, 매주(토) [7구간, 약 103Km]

사전모임 9/5(토) 14시, 양주순교성지

대상 신규자 60명(누구나) / 수료자 20명(신앙의 길 수료자)

회비 신규 14만원, 수료 7만원 / 교통비 50%지원

모집 6/30(화)까지 ※신청서와 참가비 선입금순

신청 교구 홈페이지 또는 순교자공경회 다음 카페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031-624-1398 또는 이메일 kujbmhs@hanmail.net 접수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신청 안내 ▶



[담화] 202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6/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와서 보아라.(요한 1,39)

강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화성지구 성령담당)

문의: 010-2127-0032

여름 씨든 젊은이 피정

일시: 7/5(주일) 15시~21시

장소: 씨든영성센터(한성대입구역)

대상: 미혼 청년

문의: 02-744-9825, 010-3477-9825(문자)

특별초청 김현우 바오로 신부 피정

일시: 6/27(토) 10시 미사후 대성전

내용: 말씀치유기도·찬양·미사·안수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이주사목)

문의: 010-6231-6843 신내동 성당

ICPE 흠숭기도회 - Fr. 이창진 아벨레오

일시: 7/5(주일) 15시, 과달루페성교회(합정)

문의: 010-5320-0419 치유 / ICPE플친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아름답게 나이들기: 7/3(금)~6(월)

생명력 살리는 대화: 7/8(수)~11(토)

청년피정: 7/10(금)~12(주일)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7/13(월)~17(금)

이나시오 영신수련 4박 5일: 7/13(월)~17(금)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7/3(금)~5(주일)

효소단식: 7/9(목)~12(일), 8/4(화)~7(금)

성경완독: 7/24(금)~8/1(토), 8/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길음동 성당 아가페성령기도회 신앙특강

일시: 매주(수) 18:30~20:30

6/24 김성기 신부, 7/1 조남구 신부

장소: 성당 소성전(길음역 3번 출구)

문의: 010-9248-815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평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7(금)~20(월), 7/31(금)~8/3(월),

8/14(금)~17(월), 9/18(금)~21(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본당별출장피정신청)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7/1(수)~4(토)

제주섬 우도, 비양도 포함: 7/18(토)~20(월)

7/24(금)~27(월), 7/29(수)~31(금)

8/1(토)~4(화), 8/8(토)~10(월)

8/14(금)~16(주일), 8/20(목)~23(주일)

8/28(금)~30(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청주 조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평정

일시: 매월 마지막 주(토) 14시~24(주일) 14시

강사: 윤창호 신부, 고영민 회장 외 유명강사

장소: 조정성령회관 /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8/6(목)~9(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수도원내)

비용: 42만원(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4731-2468(최 안나)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마라도 순례: 7/3(금)~5(주일), 7/10(금)~12(주일)

8/21(금)~23(주일)

한라산 숲길: 7/17(금)~19(주일)

우도: 7/24(금)~26(주일) / 올레길: 9/17(목)~19(토)

추자도 성지순례: 9/4(금)~7(월), 9/11(금)~14(월),

10/31(토)~11/3(화), 11/14(토)~17(화)

문의: 064-732-4702 면영의 집

토아올람 화요 치유평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6/23 이상기 회장, 6/30 양창우 신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 모집 ▶▶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7/6(월~토)부터 10주

문의: 02-338-3793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합창단원 모집 및 성악교실

일시: 합창단 연습(월), 성악교실(화)

내용: 합창단원(혼성)모집, 성가대원 발성지도

문의: 031-928-6784 체첼리아 오라토리움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 시스띠나음악원: 매주(금) 10:30

문의: 010-9842-8818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2026 행복한 캠프

일정: 7/17(금)~19(주일) [2박3일]

대상: 중학교 1~3학년

장소: 양업고 / 문의: 043-260-5076

접수: 7/7 10시부터 ~ 홈페이지 접수

비용: 15만원(접수완료 후 입금)

2026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영장 단기근무자 모집

채용: 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 보조,

간호사(조무사)

서류: service@hanmaum84.com 제출

주말개장: 7/4부터 매주(토, 주일)

완전개장: 7/17(금)~8/18(화)까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840-0018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 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접수: 7/6(월)~24(금)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

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교육: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장소: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오남 성당 관리원 모집

인원: 관리인(방호원) 1명(설비, 소방, 가스, 소지자 우대)

업무: 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등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2급,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시설관리 자격증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관련 자격증 사본

근무: 주 40시간 / 마감: 채용시까지

접수: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onam@uca.or.kr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808번길 20-28

문의: 031-528-1784 성당 사무실

시스피나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그레고리오성가와 미사곡연주 및 봉사
연습: 매주(화) 19시, 고양아람누리(정발산)
문의: 010-9842-8818(남성 단원 환영)

의정부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65세이하 봉사활동 가능한 분
내용: 평일 주1회 2시간 (오전, 오후 선택), 안내봉사
문의: 031-820-3473 자원봉사실
010-7595-7365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자의 성가 발성지도,
교구활동 및 성음악미사 봉헌
연습: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한국 키로(CHIRO Korea) 가족 모집

자녀의 사회성, 인성, 영성을 함께 키우는 국제
가톨릭 청소년 운동 키로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대상: 7세, 초등학생(부모)
일시: 매월 첫째·셋째 주(토) 10시~13시
장소: 햇살사목센터(종로구 혜화동, 주최)
문의: 02-744-0840 www.hatsal.or.kr

안내 · 기타 ▶▶**가톨릭합창단 세인트에프렘양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일시: 6/26(금) 19:30
장소: 백석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5446-7383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24(월)~9/4(금) 튀르키예, 그리스(565만원)
9/2(수)~12(토) 발칸반도(535만원)
9/30(수)~10/3(토) 중국 상하이(180만원)
10/6(화)~9(금) 홍콩, 마카오(195만원)
10/7(수)~10(토) 일본 나가사키(175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8/11(화)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9/8(화) 이탈리아(전대사) 특별 순례(11일)
10/12(월) 체코, 독일, 폴란드, 헝가리(12일)
10/14(수) 프랑스, 이탈리아, 메주고리에(12일)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11/4(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성지순례

9/3(목)~14(월) 성모발현지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9/21(월)~29(화) [추석특집] 이탈리아 중 부소도시
9/22(화)~25(금) [추석특집] 일본 나가사키-고토
10/5(월)~16(금)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회년] 이탈리아
10/28(수)~11/7(토) 발칸3개국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메주고리에)
문의: www.cpbctour.co.kr, 1551-1053

가톨릭 다운 합창단 제5회 정기 연주회

일시: 6/27(토) 19시
장소: 정발산 성당 2층 대성전(일산동구 일산로419)
주제: 모짜르트 미사곡과 가곡, 생활성가 등
내용: 전석 무료
문의: 010-5275-3388, 010-6422-7519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2(금) 다낭 성모발현지(5일)
10/14(수) 유럽4국 성모발현지(12일)
10/19(월) 스페인남부, 포르투갈(12일)
10/21(수) 메주고리에 순례(11일, 399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4일

9/17(목) / 비용: 599만원 (+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나자렛투어 해외 성지순례

27년 2/22(월) [제109차 성지순례] 탈출기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QR 449만원
27년 5/3(월) [제110차 성지순례] 성모님발현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루르드) 12일 QR 499만원
문의: 대표전화 1577-7029 나자렛투어

성심여행사 성지순례

10/14(수)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4일)
대한항공 탑승
10/23(금)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12일)
사도바오로의 행적 순례, 직항 이용, 페리 탑승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예수회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8/12(수) 김대건 · 최양업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얼빈, 장춘, 단둥,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24(목)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추석연휴)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640만원)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곤벤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첫째(주일) 14시	서울 혜화동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	010-4344-199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성소자 모집		010-5195-3217



2027 세계청년대회 홈스테이 가정모집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신앙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모집대상	의정부교구 내 모든 본당 신자 가정 4박 5일 숙박제공 가능한 가정 (1가구당 2명) 외국어 소통 능력 무관 (열린 마음과 환대 정신)
모집기간	2026년 6월 12일 - 7월 31일 (1차)
신청방법	본당 사무실로 홈스테이 가정 신청서 제출
문 의	각 본당 사무실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봉소승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1: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 지 / 단 체

- 6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6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7월 병자 영성체
일 시: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7월 성시간
일 시: 7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7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
오늘은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성공기원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기 간: 2026년 1월 - 2027년 7월까지
방 법:
① 지향: 2027 WYD와 젊은이들을 위하여
② 마침기도로 '2027 WYD 공식 기도문'을 바침
③ 목주기도 10단을 바칠 때마다 목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목주알과 봉헌함은 성전 뒤쪽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주 성당 5월 말 현재 목주 기도: 21,990단

우리들의 정성(6/8 - 6/14)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700,000원
주일헌금 994,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이동준	200,000원	황은순	10,000원
이병수	10,000원	심경애	50,000원
한나경	50,000원	오현주	50,000원
오정화	200,000원		

